

 금융위원회		<h1>보 도 자 료</h1>				
 금융감독원		보도	2020.6.29.(월) 조간	배포	2020.6.26.(금)	
책 임 자		금융위 은행과장 박 민 우(02-2100-2950) 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김 성 우(02-3145-8350)		담 당 자		송용민 사무관(02-2100-2953) 임종건 팀 장(02-3145-8360)

제 목 : 「바젤Ⅲ 최종안」이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에
조기 시행됩니다.

1 추진 경과

- 금융위·금감원은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이하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바젤Ⅲ 최종안」의 내용 및 금번 조기 시행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3.27, 4.17)*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20.2분기부터 조기 시행합니다.”(3.27)
- ②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4.17)

- ☐ 이후 「바젤Ⅲ 최종안」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5월말까지 희망시점을 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4.8))

- * 「바젤Ⅲ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일반적인 시행시점은 '23.1월로 하되 조기도입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행지주회사는 '20.6월말부터 매분기말 시행할 수 있음

- 그 결과,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하였으며, 금감원은 이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6.26)

2

조기 시행 내용

- '20.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합니다.
- '20.6월말 3개사를 시작으로, '20.9월말 15개사, '20.12월말 2개사, '21.3월말 2개사, '21.6월말 1개사 등 조기 시행 금융회사가 추가될 예정이며,
-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뱅크는 '23.1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별 시행시기〉

	'20.6말	'20.9말	'20.12말	'21.3말	'21.6말
은행지주회사	JB	신한, 우리, KB, DGB, BNK, 농협,		하나	
은행	광주, 전북	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 수협	산업, 기업	하나	수출입

3

기대 효과

- 금변 조기 시행으로 조기 시행 예정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은행들은 평균 1.91%p,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p 상승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 평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체 추정 결과)

-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